

# 6억짜리 임시 주차장 논란

### 광주시 광엑스포 열리는 DJ센터 주변 조성

#### “한달 사용한 후 원상복구...” 이중납비 지적

광주시가 임시 주차장 설치에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일 광주시가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 제출한 ‘2009년도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시는 오는 10월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일원에서 열리는 ‘2009 광주 세계광엑스포’ 행사를 위해 영산강 둔치 등 3곳에 주차장을 조성키로 하고 사업비 6억3천만 원을 책정했다.

시는 광엑스포 행사에 일요일의 경우 하루 최대 10만여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돼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행사장 인근 3곳에 9천582㎡ 3천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

이다. 특히 영산강 둔치에 4억원 가량을 투입해 1천600면 규모의 주차장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주차장은 광엑스포 행사 기간(10월9일~11월5일)인 28일동안만 사용하는 1회성 주차장이어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이다.

특히 영산강 둔치의 경우 국가하천으로 주차장 사용 후 원상 복구해야 돼, 복구 비용 지출이 뒤따라 이중납비라는 지적이다. 또 하천 지형이라 지반이 약해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

해서는 지반을 다지고 골재 등을 깔아야 해 하천 환경 훼손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의회 양해령 의원(민주·동구1)은 “광엑스포 행사때 한번 사용하려고 6억3천만원이라는 시민들의 혈세를 쏟아붓는 것은 예산낭비다”며 “광엑스포는 계속 개최해야 할텐데 행사 때마다 1회성으로 수억원씩을 내다버릴 것이나”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1회성 주차장 조성보다는 행사장 주변 도로의 주차장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대규모 행사에는 교통대책 등 후속 조치가 당연히 뒤따르는 것 아니겠느냐”며 “광엑스포를 관람하러 온 외국인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주차장 확보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개성공단 통행 사흘째 정상

북한이 19일 개성공단 육로 통행을 허용, 지난 17일부터 사흘째 개성공단 왕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은 이날 오전 10시께 남측이 전날 통보한 방북 및 귀환 예정자 전원에게 경의선 육로 통행을 허용한다고 통보, 이날 하루 경의선 육로를 통해 433명이 방북하고 342명이 귀환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그러나 평소 오전 9시 이전에 전달돼온 북측의 통행 동의를 이날 늦게 도착함에 따라 9시 시작하는 경의선 육로 방북이 1시간20분 가량 늦어졌다. 이 때문에 오전 9시 방북 예정자들이 10시20분께 출발했고, 10시, 11시 방북 예정자들은 11시에 한꺼번에 북으로 떠났다. 【연합뉴스】



18일 한국 신속대응팀 관계자(왼쪽)가 지난 15일 1차 지살폭탄테러가 발생해 한국인 관광객 4명이 희생된 예멘 남동부 고대 도시 시밤지역에서 외국 관광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국인 겨냥한 알카에다 기획테러”

### 정부, 예멘조사 대책마련 착수

정부는 예멘에 파견된 신속대응팀과 유가족들이 폭탄테러를 당한 것과 관련, 한국인을 겨냥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한국인 표적테러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아직

100%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두 번이나 폭탄테러 사건이 발생한 만큼 표적 테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면서 “테러를 한 조직(알카에다) 입장에선 미국이나 한국이 동맹국인 만큼 비슷하게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도 “신속대응팀에 따라 한국인 표적테러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아직

다른 당국자는 “여러 정황상 한국인을 타깃으로 삼은 계획적인 표적테러일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확실한 증거나 증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인 겨냥 여부는 정부의 후속 대응방향을 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韓-예멘 전방위 협력? 소말리아 파병?

### ■알카에다 왜 한국인 노렸나

최근 예멘에서 한국관광객에 대한 자살폭탄 테러와 정부 대응팀 탑승차량에 대한 알카에다의 연쇄 테러를 계기로 최근 부쩍 강화된 한국과 예멘의

전방위 협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국 정부의 최근 협력 확대가 결과적으로 알카에다의 직·간접적인 테러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추정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관광객들에 대한 첫 테러가 발생하기 불과 수일전에 한국정부가

예멘 개발프로젝트에 향후 4년간 1억 달러를 투자기로 한 것을 비롯, 여러건의 대규모 경제협력이 예멘 언론에 잇따라 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소말리아 파병이 이슬람 과격세력을 자극, 예멘에서의 두 차례 테러를 야기한 하나의 배경을 제공했으리란 분석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해적이 창궐하는 소말리아는 이미 사실상 정부 통제력을 상실한 상태다. 【연합뉴스】

## 美 여기자 2명 北 국경수비대에 억류

### 탈북자 문제 취재중...美 ‘조속 석방’ 요청

미국 국적의 여기자 2명이 북한과 중국 접경지역에서 취재 도중 북측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소식통은 19일 “2~3일 전 북·중 접경지대인 두만강 인근에서 미국 국적의 여기자 2명이 취재 도중 북한 당국에 억류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3명이 취재하다가 1명은 도망가고 2명만 잡혔다는 얘기도 있다”면서 “이들 기자는 현장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억류된 미국 국적의 여기자는 중국계인 로라 링(Laura Ling)과 한국계인 유나 리(Euna Lee)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이들은 북한 당국 요원들의 제지 요청에도 촬영 등 취재활동을 계속하다가 억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북한 군이 중국 영토로 넘어가 이들을 억류했다는 관측도 제기되지만 확인되지 않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 군이 무리해서 억지로 여기자들을 끌고 가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은 사건 발생 직후 뉴욕채널을 통해 북한측에 ‘조속한 석방’을 요청하고 있지만 북측은 아직까지 이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1996년 한국계 미국인인 예멘 현지커가 압박장을 넘어 북한으로 밀입국하자 억류한 바 있지만 빌 클린턴 당시 미국 대통령의 특사로 방북한 빌 리처드슨 당시 미하원의원과 협의 끝에 석방한 바 있다. 【연합뉴스】

## 이건희 전 삼성회장 임원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기관지염으로 인해 입원 치료중이다.



삼성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감기, 몸살을 동반한 기관지염으로 18일 오후 서울 일원동 삼성병원 입원해 치료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전 회장이 신촌인사차 일본을 방문했는데 일본에 있을 때부터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 귀국하면서 공항에서 바로 병원으로 가 입원했다”며 “의료진 설명으로는 1주일 정도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전 회장은 수년전 폐 림프암으로 수술을 받은 뒤 호흡기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Hanbit Education Center (한빛고시학원). It features text about '9급 공무원 이론반' (9th grade civil servant theory class) and '5일 특집기기억특강' (5-day special memory training). The a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a website URL.

Advertisement for a mobile phone service. It features a woman's face and text promoting a '무료체험단모집' (free trial group recruitment) for a service. The price is listed as 29,000 won. The ad includes a phone number and a website URL.

Advertisement for Novita bidet toilets. It features a woman's face and a bidet toilet. The text highlights '신뢰할수 있는 10년 세월의 풍부한 경험과 관록의 비데전문기업!' (Reliable 10-year experience and expertise of a bidet specialist company!). The ad includes a phone number and a website URL.